

# '24.3월 전산업 생산은 4개월 연속 증가 후 조정, 1분기 전체로는 양호한 회복흐름

- '24.3월 및 1분기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

## 【3월 산업활동동향】

'24.3월 산업활동을 살펴보면, 생산 측면에서는 광공업( $\Delta 3.2\%$ ), 서비스업( $\Delta 0.8\%$ ), 건설업( $\Delta 8.7\%$ )이 감소하는 등 전산업 생산( $\Delta 2.1\%$ )이 '23.11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한 영향으로 조정받는 모습이다.

\* 전산업 생산(전월비, %): ('23.7) $\Delta 0.7$  (8)1.8 (9)0.8 (10) $\Delta 0.7$  (11) 0.3 (12) 0.4 ('24.1) 0.3 (2) 1.1 (3) $\Delta 2.1$   
 광공업 생산(전월비, %): ('23.7) $\Delta 2.6$  (8)5.4 (9)1.9 (10) $\Delta 1.7$  (11) 1.6 (12) $\Delta 0.4$  ('24.1) $\Delta 1.5$  (2) 2.9 (3) $\Delta 3.2$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 ('23.7) 0.2 (8)0.4 (9)0.2 (10) $\Delta 0.3$  (11) 0.0 (12) 1.4 ('24.1) $\Delta 0.3$  (2) 0.5 (3) $\Delta 0.8$   
 건설업 생산(전월비, %): ('23.7) 0.5 (8)1.6 (9)0.4 (10) $\Delta 0.5$  (11) $\Delta 2.4$  (12) $\Delta 3.6$  ('24.1) 12.7 (2) $\Delta 1.0$  (3) $\Delta 8.7$

지출 측면에서는 소매판매(1.6%)가 준내구재( $\Delta 2.7\%$ ) 감소에도 내구재(3.0%) 및 비내구재(2.4%)가 늘면서 증가하였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Delta 7.8\%$ )와 운송장비( $\Delta 2.9\%$ )가 감소한 영향으로 줄었고( $\Delta 6.6\%$ ), 건설투자는 토목( $\Delta 6.0\%$ )과 건축( $\Delta 9.5\%$ )이 연초 큰 폭 증가 후 반락( $\Delta 8.7\%$ )하였다.

\* 소매판매(전월비, %): ('23.7) $\Delta 3.1$  (8)0.5 (9) $\Delta 1.0$  (10) 0.8 (11) $\Delta 0.1$  (12) 0.5 ('24.1) 1.0 (2) $\Delta 3.0$  (3) 1.6  
 설비투자(전월비, %): ('23.7) $\Delta 8.6$  (8)3.9 (9) 6.8 (10) $\Delta 1.9$  (11) $\Delta 2.0$  (12) 2.3 ('24.1) $\Delta 5.8$  (2) 9.6 (3) $\Delta 6.6$   
 건설투자(전월비, %): ('23.7) 0.5 (8)1.6 (9) 0.4 (10) $\Delta 0.5$  (11) $\Delta 2.4$  (12) $\Delta 3.6$  ('24.1) 12.7 (2) $\Delta 1.0$  (3) $\Delta 8.7$

## 【1분기 산업활동동향 흐름 및 평가】

'24.1분기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전산업 생산이 5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1분기 국내총생산을 통해 확인된 양호한 경기 회복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공업의 경우, 월별 변동성 영향으로 3월 조정된 모습이나 견조한 수출 개선세와 1분기 주요 제조업종 실적 호조 등은 제조업·수출 중심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수의 경우,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은 '23년 하반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모습이며, 최근 방한 관광객 증가와 양호한 소비심리 등은 내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투자는 건설투자가 선방한 가운데, 설비투자는 연말 큰 폭 늘었던 기저의 영향으로 소폭 줄면서 1분기 국내총생산 실적과 부합하는 모습이다.

전체적으로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에 더해 내수 회복조짐이 확산되며 균형 잡힌 회복흐름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을 위해 농축수산물·에너지 물가 관리 등 2%대 물가안정 기조의 조속한 안착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기업·건설·지역 투자 보강, 취약 부문 금융지원 및 밸류업 후속조치 등 민생 체감도 제고에 최우선 역점을 둘 계획이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30)
			사무관	최문성 (044-215-2731)
			사무관	박철희 (044-215-2732)
			사무관	성지현 (044-215-2735)



## 1. 주요 내용

### ① [생산] 3월은 월별 변동성으로 조정이 나타난 영향으로 감소

- ① **[광공업]** 반도체와 자동차 등 다수 업종의 생산이 감소하며 마이너스 전환('24.2월: +2.9 → 3월: △3.2%)

▶ <반도체> 생산은 소폭 감소했으나, 출하가 증가하면서 재고는 감소

* 생산(전월비, %)	(23.7)△4.0	(8)16.5	(9) 11.8	(10)△10.5	(11) 9.8	(12) 3.6	(24.1)△8.3	(2)4.9	(3)△0.7
출하(전월비, %)	(23.7)△28.8	(8)7.1	(9) 34.0	(10)△23.3	(11) 7.6	(12) 33.2	(24.1)△32.0	(2)7.8	(3)11.1
재고(전월비, %)	(23.7) 5.7	(8)13.8	(9)△7.7	(10)△9.8	(11)△1.9	(12)△20.9	(24.1) 2.0	(2)△3.2	(3)△2.4

- 재고/출하비율은 출하(△2.2%)와 재고(△1.2%) 모두 감소했으나, 출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며 전월 대비 증가(+1.4%p)

\* 재고/출하비율(%): ('23.8)118.8 (9)111.5 (10)115.0 (11)112.5 (12)104.1 ('24.1)111.7 (2)110.2 (3)111.6

- ② **[서비스업]** 운수·창고는 증가(+1.4%)했으나 숙박음식(△4.4%)·여가(△1.7%) 등 대면업종이 줄며 소폭 조정('24.2월: +0.5 → 3월: △0.8%)

\* [운수·창고] 물류량 증가 및 해운매출 증가 [숙박·음식, 여가] 기상악화 및 전월 증가의 기저

	'22	'23	'23.1/4	2/4	3/4	4/4	'24.1/4	1월	2월	3월	(업종별 전월비, %)
전산업											
<전기비, %>	-	-	0.1	0.6	1.0	0.7	0.7	0.3	1.1	△2.1	(광공업)△3.2 (건설업)△8.7
<전년동기비, %>	4.6	1.0	1.6	△0.3	1.3	1.3	2.9	7.2	1.7	0.2	(서비스업)△0.8 (공공행정)△1.6
광공업											
<전기비, %>	-	-	0.4	2.6	1.3	2.2	△0.4	△1.5	2.9	△3.2	(음료) 1.4 (금속가공)△10.6
<전년동기비, %>	1.0	△2.6	△8.3	△6.1	△0.4	4.8	5.8	12.9	4.6	0.7	(반도체)△0.7 (전자부품)△7.8
서비스업											
<전기비, %>	-	-	1.0	0.0	1.0	0.3	0.8	△0.3	0.5	△0.8	(운수창고) 1.4 (사업지원) 1.4
<전년동기비, %>	7.0	3.2	6.3	2.6	2.3	1.8	2.1	4.3	0.9	1.0	(숙박·음식)△4.4 (도소매업)△3.5

### ② [지출] 소매판매(+1.6%) 증가, 설비투자(△6.6%)·건설기상(△8.7%) 감소

- ① **[소매 판매]** 준내구재(△2.7%)는 줄었으나, 내구재(3.0%)·비내구재(2.4%) 판매가 늘며 플러스 전환('24.2월: △3.0% → 3월: +1.6%)

▶ '24.2 → 3월(전월비, %): (내구재) △2.8 → 3.0 (준내구재) 2.6 → △2.7 (비내구재) △4.9 → 2.4

[내구재]	전기차 보조금 3월 본격 지급에 따라 승용차 판매 큰 폭 확대(+11.3%)
[준내구재]	2월 간절기 의류판매 확대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의복 중심 감소
[비내구재]	3월 화장품 세일 이벤트에 따라 화장품 판매 확대

**② (설비투자) 운송장비(△2.9%)와 기계류(△7.8%)의 동반 감소로 전월 큰 폭 개선 이후 반락('24.2월: +9.6 → 3월: △6.6%)**

\* (운송장비) 승용차 수입 감소, 2월 대형기체 도입 이후 3월 미도입 영향 등  
(기계류) 반도체 업체들의 장비도입 일정 상 3월 도입물량 감소

**③ (건설기성) 건축(△9.5%)·토목(△6.0%) 모두 연초 큰 폭 상승했던 기저 영향으로 감소('24.2월: △1.0 → 3월: △8.7%)**

\* (건축) 대단지 아파트 마무리 공사 2월 종료 (토목)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 기성 감소

		'22	'23	'23.1/4	2/4	3/4	4/4	'24.1/4	1월	2월	3월	(업종별 전월비 %)
소매 판매	<전기비, %>	-	-	0.6	△0.5	△1.9	0.4	△0.2	1.0	△3.0	1.6	(내구재)3.0 (준내구재)△2.7 (비내구재)2.4
	<전년동기비 %>	△0.3	△1.5	△0.8	△0.7	△2.7	△1.9	△1.8	△3.3	1.1	△2.7	
설비투자	<전기비, %>	-	-	△8.0	1.0	△3.1	3.1	△1.2	△5.8	9.6	△6.6	(기계류)△7.8 (운송장비)△2.9
	<전년동기비 %>	3.3	△5.4	△1.0	△0.9	△10.7	△8.5	△0.9	3.8	△0.9	△4.8	
건설기성	<전기비, %>	-	-	2.8	1.1	1.1	△2.5	5.2	12.7	△1.0	△8.7	(건축) △9.5 (토목) △6.0
	<전년동기비 %>	2.8	7.4	11.5	8.7	10.1	0.6	4.5	17.0	0.4	△2.1	

**3 [경기 순환변동치] 동행지수(△0.3p)와 선행지수(△0.2p) 모두 하락**

**① (동행지수) 내수출하·광공업생산 등 감소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 동행지수 순환변동차 ('23.8)99.8 (9)99.6 (10)99.8 (11)99.7 (12)99.6 ('24.1)99.7 (2)99.9 (3)99.6 <△0.3p>

**② (선행지수) 건설수주액·기계류내수출하 등 감소하여 하락 전환**

\* 선행지수 순환변동차 ('23.8)99.5 (9)99.6 (10)99.9 (11)100.1 (12)100.3 ('24.1)100.3 (2)100.5 (3)100.3 <△0.2p>

## 2. 평가 및 전망

□ '24.3월 및 1분기 산업활동 상 전산업 생산은 1분기 전체로는 5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GDP 회복흐름과 유사

○ 광공업은 월별변동성 영향으로 조정폭이 컸으나, 건조한 수출 흐름과 1분기 주요 제조업 실적호조 등은 회복세 지속 시사

\* 수출증가율(전년비, %): ('23.9)△4.4 (10)4.9 (11)7.3 (12)5.0 ('24.1)18.2 (2)4.9 (3)3.1 (4.1~20)11.1

- 3월 재화 소비가 반등한 가운데, 1분기 전체로는 서비스 중심으로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
  - \* 해외發 입국객 확대, 양호한 소비심리, 카드결제액 증가세 등은 내수 개선을 뒷받침
- 투자는 설비·건설 모두 3월 감소했으나 연초 큰 폭 상승의 기저에 따라 조정된 결과, 1분기 전체로는 GDP 실적과 부합
- 수출 중심 경기회복과 함께 내수 회복조짐이 확산되며 균형 잡힌 회복흐름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 단, 상하방리스크 상존
  - 생산측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IT업황 및 글로벌 제조업 개선 기대와 함께 세계경제 연착륙 전망 등이 긍정적
    - 지정학적 불안·공급망 리스크,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은 부담
  - 지출측면(소비·투자)에서는 해외發 입국증가 기대\*, 5월 가정의 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이 상방요인이나,
    - \* 5월은 일본 골든위크(4.27~5.6), 중국 노동절(5.1~5) 등 계기 방한관광객 추가 확대 기대
    -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와 건설수주 부진 등은 하방요인

### 3. 대응방향

-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총력대응
  - ① 농축수산물·에너지 물가관리와 기업·건설·지역 투자 보장, 취약 부문 금융지원 및 밸류업 후속조치 등 민생 체감도 제고에 역점
  - ② 세일즈 외교 성과의 수출·투자·일자리로의 체계적 연계 지원, 현장애로 발굴·해소에 집중
  - ③ 중동 등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동산PF·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
  - ④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경쟁 확립,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과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병행